

# 봄, 너 보러 간다



에코리움 지중해관에 만발한 돤베아 발리키이.



마랑리 동백나무숲에 활짝 핀 동백꽃.

## 한겨울에 피어난 꽃... 서천으로 떠나는 이른 봄 마중

**충남**

지난 가을 충남 서해안에 지독한 가뭄이 들더니 그 한(恨)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올 겨울 유난히 눈·비가 잦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지난 주에 충남 서천에 40cm이상의 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천으로 향했다. 한겨울에 피어난 꽃을 보기 위해서이다. 대전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가 논산에서 4번 국도로 갈아탔다. 부여를 지나 서천군 관교면에 들어서자 마자 세상의 색깔이 바뀌었다. 마치 강원도 천천산중 눈꽃마을에 온 듯 했다.

▶진화론 창시자인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한 거가 30cm에 달하는 난초. 다윈 난이라고 부른다.



◇마랑리 동백나무숲 = 자연스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면 마랑리 동백나무숲으로 향했다.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동백꽃을 보고 싶었다. 노란색의 수술을 감싸고 있는 붉은색의 동백꽃잎은 희 눈 속에 피었을 때 그 붉은빛이 더욱 강렬하다.

마랑리 동백나무숲은 육지에서 동백나무 자생지로는 북방한계선이다. 어떻게 이 곳에 동백나무가 자라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85그루의 동백나무들이 서해바다를 등진 채 500년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닷바람이 거센 탓에 마랑리 동백나무는 위로 자라지 못한 채 옆으로 벌어 마치 커다란 우산 모양을 하고 있다. 대부분 밑동의 길이만 15m나 되는 아름답다. 이런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마랑리 동백나무숲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었다.

이미 꽃망울을 터트린 성체 급한 놈들은 맹추위에 얼어 버려 붉은 빛을 잃었고, 대부분은 따사로운 햇살을 기다리며 꽃봉오리를 잔뜩 오므리고 있었다. 마랑리 동백나무의 만개시기는 대략 3월말쯤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달반달 윤기나는 초록색 잎에 흰 눈을 가득 이고 있는 동백나무의 모습은 지금이 아니면 좀처럼 볼 수 없다.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한 마랑리 동백나무숲은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나들이에도 제격이다. 나무 계단과 돌계단을 이용해 20분 정도면 한 바퀴 돌러볼 수 있고, 언덕위에 있는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환상적인 아름다

## 장항 국립생태원 蘭 특별전 야생종 서식환경 재현 '다윈 난' 등 볼거리 가득

움을 자랑한다.

입장료 성인 1000원 학생 500원. 관람시간 오전9시~오후5시(동절기). 문의 : 마랑리동백나무숲관리소(041-952-7999)

◇국립생태원 '난 속을 거닐다' 특별전 = 15년만에 찾아온 한파에도 꽃이 피는 동백나무를 뒤로 하고 장항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을 찾았다.

이 곳을 찾은 이유는 특별한 난(蘭)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다. '난 속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생태전시회가 특별한 이유는 전시된 500여종의 난들이 모두 재배종이 아닌 야생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원예종이 아닌 야생종의 서식환경을 재현해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의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윈 난, 바닐라 난, 원숭이 난 등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난이 바로 다윈 난이다. 진화론 주장자인 찰스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길이가 30cm에 달하는 거(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에 길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를 갖고 있는 난초를 발견

했다. 찰스 다윈은 긴 거 안에 들어있는 꿀을 빨아먹는 엄청난 길이의 주둥이를 가진 곤충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그의 사후 40년 만에 사실로 판명났다. 박각시나방이라는 주둥이 길이가 30cm가 넘는 곤충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난의 생태학습 장소로도 제격이다. 전세계적으로 800여속 3만여종의 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에서 자라는 지생 난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나무나 바위, 돌 등에 부착해 서식하는 착생 난이다. 에코리움 열대관에 들어서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각 지역에 서식하는 난의 생육환경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키 큰 나무의 중간 중간마다 뿌리를 내린 수 십 종의 난을 보고 싶다면 자연의 경이로움마저 느낀다.

열대관에서 난을 구경했다면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에서는 기후에 따른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다. 사막관에서는 알로에 종류와 꽃도 구경할 수 있다. '난 속을 거닐다' 특별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하루에 9차례 1시간씩 생태해설사가 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려준다. 입장료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소인 3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5시(입장마감 오후4시). 문의 : 에코리움 안내데스크(041-950-5902)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대전일보 한경수 기자

## 서천여행길 꼭 들러야 할 곳

### 곰솔 숲 240m 스카이워크 신성한 해산물 저렴한 흥원항

▲장항스카이워크 = 장항읍 송림산림욕장 내 위치한다. 곰솔 숲 사이로 높이 15m 길이 240m의 스카이워크가 조성되어 있다. 스카이워크 끝에 위치한 기벌포해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의 풍경이 아름답다.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무료개방중이다.

▲흥원항 = 서면 도둔리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싱싱한 각종 생선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매일 오전8시30분에 경매가 이루어지며 요즘은 물메기와 주꾸미가 제철이다. 물메기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지만 7-10마리 정도 들어있는 1상자에 3만-7만원 정도에 거래되며, 주꾸미는 1kg에 2만-2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서천 먹거리 = 장항은 예로부터 어귀항으로 유명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꼬들꼬들 말린 아귀를 사용하는 반면 장항 아귀탕은 생아귀만을 고집한다. 그래서 살이 쫄득하면서 담백하다. 장항 아귀탕은 살 뿐만 아니라 위, 간 등 내장도 듬뿍 넣어 깊은 감칠맛이 난다. 장항읍내에 있는 우리식당(041-957-0465)이 유명하다. 조기집, 새우, 달걀집, 양념꽃게장 등 밑반찬도 푸짐하다. 생아귀탕 1인분 가격은 1만5000원이다.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 들어서면 원예종 난으로 꾸민 해설을 해놓았다.

光州日報 江原日報 경인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新보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